

# 옥정호 수역 갈등 해결 방안 모색

### 전북도, 정읍시·임실군 등과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녹조 원인조사 용역 추진·가뭄대책 등 논의

전북도는 지난 21일 옥정호 수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읍시,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첫 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 검토 및 녹조 원인조사 추진계획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가뭄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에 관해 상수원관리는 환경부 및 시군 등의 소관 업무이어서 포괄적 사무임을 맡는 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향후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삼천강범지사에서 추진하며 현재

는 용역과제를 심의 중으로 오는 6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억6,000만원을 투자해 유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옥정호 가뭄대책으로는 현재 저수율이 19.2%로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 전담관으로 공급되는 배분량 조절, 섬진강댐 인근 광역 정수장 연계 공급대책 등 철저한 용수관리로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광역상수도 단계별 비상연계급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신기현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장 주재로 상상생협의체 운영 규정을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도에서 마련한 협의체 운영 규정 초안을 토대로 운영 목적 변경, 감사의 협의

체 참여 여부, 의결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운영목적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근거한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김제시는 협의체 참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는데, 당초 협의체 운영이 도정읍시·임실군이 참여한 '상생협력선언서 및 합의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결 방식은 상생협의체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살려 가능한 한 다수가결식 표결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협의와 심도있는 논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가결했다.

더불어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심의에 대비하고, 과업 내용은 시군 및 전문가 등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 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여기에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 협의회 설치, 옥정호 상류 유역 물 관리 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끝으로 신기현 위원장은 "정읍과 임실 양 시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나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한할 좋은 안건을 발굴해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정읍·임실을 방문해 민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재훈 기자



## '세계 물의 날' 맞아 물의 소중함 홍보

### 도내 곳곳에서 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정화 활동 민경강 하천변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등 수거 진행

전북도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도민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환경 정화활동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은 매년 3월 22일로, 인구나 경제활동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UN)이 정한 기념일이다.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주관하는 '세계 물의 날' 캠페인에 동참해 유관기관과 함께 민경강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정화 활동을 펼쳤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념식 및 정화활동, 물 문화 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익산(익산천), △정읍(태인천), △남원(도로·관광지), △김제(난봉계), △완주(마고내리), △진안(진안천), △장수(장수천-동화동 등) 등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남원시는 28일까지 물의 날과 관련된 온라인 퀴즈를 통해 친 환경 생활물품을 지급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 모두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미래의 중요한 자원인 물의 가치를 알아주기 바란다. 전북도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행사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생활 속에서 물 절약 및 정화활동, 물 문화 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위도 찾아 가뭄 현황 점검... 총력 대응 당부

### 허전 도민안전실장, 위도 현황 점검·가뭄대책사업 조기 완료 주문

전북도는 22일 기록적인 가뭄으로 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부안 위도를 방문해 가뭄대책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소풍 행정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부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장 위도면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위도 저수지에서 가뭄 및 물 부족 상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가뭄 대책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관정 개발 현장을 찾아 조속한 공사추진과 중장기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부안군은 작년부터 2,800만원을 투입해 위도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했다.

또 노후 상수관로 누수탐지를 통한 유수를 제고로 일 누수량을 410m에서 300m까지 줄이는 등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해 지하수 관정

5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3월 말 공사가 완료되면 위도지역 물 부족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방수 및 생활수칙 안내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통해 물 절약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는 특교세 총 57억 원을 투자해 위도를 포함한 도내 가뭄 지역 8개 시군에 관정 총 64공, 양수장 2개소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공사를 4월 중 완료해 가뭄 극

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는 가뭄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수단을 동원해 대응하였으며, 도민들께서도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가뭄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기 극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부안 위도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위도의 최근 1년 강수량은 964.2mm로 평년 대비 78%에 그치고 있으며, 수원지인 위도 저수지의 저수율은 16.7%를 기록하는 등 위도와 인근 도서 주민 1,100여 명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도, 전담여행사 대상 초청홍보여행 진행

### 순창발호테마파크·강천힐링스파·실랜드 등 방문

전북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전라북도 전담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체험·레저형 전북 관광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홍보여행(캠투어)은 전라북도(도)의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여행사 관계자가 직접 전북의 곳곳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답사 형태의 여행일정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의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도·유관기관·여행사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점차 달라지고

있는 전북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사 첫날인 21일은 순창발호테마파크, 강천힐링스파, 실랜드 등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저녁에는 전라북도 관광지원 홍보 및 간담회를 통해 전담여행 상품 기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도내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2023년 국제행사(아미바스타스, 새민남 세



계스카우트 캠퍼)연계,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직접 소개하면서 전담여행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둘째날인 22일에는 옥정호 요산공원, 봉어섬, 남원 모노레일 체험 후 전라북도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전북도와 전담여행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광지원 상품기획, 전방위 관광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의 결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도, 농생명 식품 분야 유망기업 키운다

### 참여기업 20개사 내달 7일까지 모집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북도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북도내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제조기업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분사 또는 사업장이 도내 소재 기업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평가, 현장심사, 발표평가 및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전북도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창업스타, 성장스타, 리딩스타 등 단계별로 총 20개사 대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7년까지 기술 역량강화 및 고도화, 사업화, 성장전략 수립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바이오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3-511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목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한 세해(침수 및 고립 등)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정함.
- 주민의견 수렴 개요**  
가. 행정예고 및 열람기간 : 2023. 03. 16. ~ 2023. 03. 29. (14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03. 16. ~ 2023. 03. 29. (14일간)  
다. 공고방법 : 완주군보,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www.wanju.go.kr) 및 게시판, 해당읍면 게시판  
라.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 지구명      | 위치                        | 지정내용  |    |        | 지정사유  | 비고 |
|----------|---------------------------|-------|----|--------|---|----|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 공덕(완주)지구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158-2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나  | 29,446 | 김중호우시 내수배제 및 통수단면 불량으로 상승 침수되는 저지대 가옥 및 농경지 등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되는 지역임. |    |

### 4.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

| 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제  |
|---|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
| 1. 침수위험 이상의 대지의 송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송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생겼을 경우,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송고 전후의 유수(溜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공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
|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경지 작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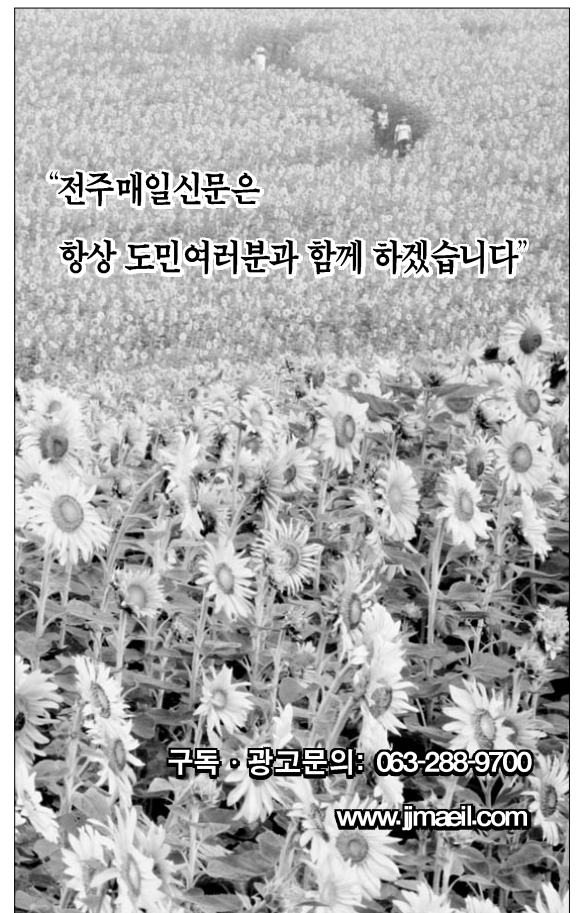
### 5.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완주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3월 29일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lak1125@korea.kr) 또는 팩스(063-290-2064)  
라. 제출처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완주군청 재난안전과)  
마. 한 의 지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 담당자 ☎ 063)290-293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자연재해위험(예정)개선지구 현황 1부.

###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난안전과(☎063-29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완 주 군 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